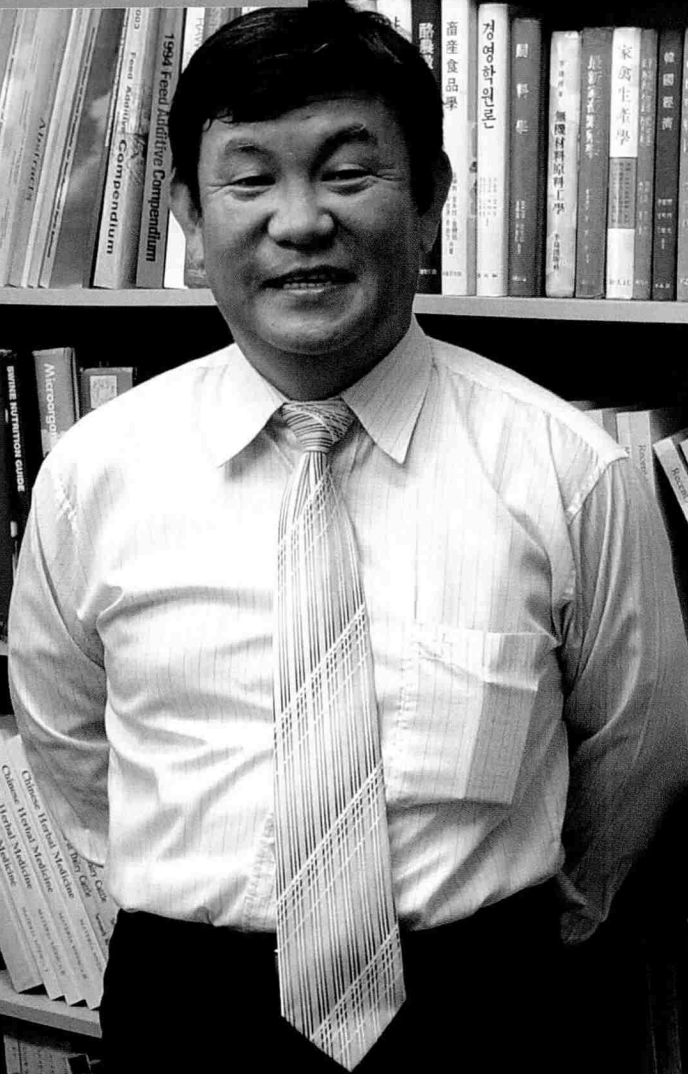


Top Made  
(주)TM세미

비즈니스잇보기

(주)TM세미



▲ 이명준 대표

>>> [ 취재 \_ 현시영 ]

# 과학축산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기업



▲ (주)TM세미 이명준 대표

전심치지(專心致志). 오로지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바치어 뜻한 바를 이룬다는 의미이다.

이 사자성어와 유난히 잘 어울리는 TM세미의 이명준 대표(46)는 건국대학교에서 축산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친 후 동물약품회사에 입사해 쌓은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일찍 자신만의 회사를 설립했다.

96년 세미교역으로 시작해 2001년 (주)티엠세미가 된 후 지금까지 꾸준한 신념으로 한길만을 고집해온 이명준 대표와의 취재는 마치 열정적인 강의를 듣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TM세미는 식물추출제(Herbal Extract)를 이용해 항생제 대체제를 개발하고, 미국과 유럽 등

외국 우수기업의 수입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회사이다.

“항생제 과다사용으로 인한 내성문제로 인해 점차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항생제를 전면 규제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따라서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식물추출물(Herbal Extract)을 이용한 연구와 제품출시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생제 대체제 분야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해요” 라고 한 이명준 대표는 6~7년 전부터 한약재를 이용한 항생제 대체제를 개발해오고 있고 현재는 다수의 물질들을 검증해 제품으로 탄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며 산업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었다.

이명준 대표는 동물약품회사에 근무하면서 국내에 유통되고 있던 동물약품에 대해 한계를 느꼈다고 한다. 좋은 제품도 오래 쓰다보면 오히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기존의 제품에서 탈피할 수 있는 첨가제를 개발하고 싶었다고 말하며, 자신이 회사를 차리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하고 싶었던 것, 꿈꿔왔던 것을 기반으로 연



### 생각의 차이

같이 일하는 자세에서 어떤 이는  
중요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자세로 일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시기심과 미움에 화거나 생계수단의  
부족으로만 생각해 소극적으로  
일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더 나아질 수 있다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을 할까? 아니면 더불어 행복이 갖는 것이지요.  
인생의 낙원과 지옥의 차이는 바로 생각의 차이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마음으로 일을 잡아보십시오.  
그리고 열정을 쏟아부어보십시오.  
분명히 당신의 인생은 낙원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우면 인생은 낙원이다.  
마음의 의무에 몰락하면 인생은 지옥이다.  
- 요리력 -

구·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공법 자체가 어려운 제품이 있어 상품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있죠.” 라고 말한 이명준 대표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유럽 쪽에서는 한약재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한약재에서 추출한 Essencial Oil이었다.

현재는 이미 나온 연구결과를 토대로 철저하게 물질을 검증하고 응용해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좋은 아이디어만 가지고 실용화 하는 데에 힘겨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

이명준 대표는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좌절을 겪었지만 ‘축산업은 사양 산업이다, 더 이상 R&D는 없다’는

말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좋은 제품을 개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정도 규모는 줄어들겠지만, 첨가제 제조업체들의 실력이 대동소이한 가운데 집념과 노력, 투자가 실력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말한 이 대표는 몇 해전 설립한

공장이 큰 투자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투자한 만큼 맺은 결실이 더 많다고 말하며 뿌듯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TM세미의 제품 중 눈에 띄는 것은 Hepa Pro(헤파 프로)와 LiverEX.

Hepa Pro를 구성하고 있는 약재는 쫓소에서 간 기능개선, 담즙산 분비촉진으로 인해 에너지 체내 공급을 증가시켜 전화기 시기에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여 유량 감소를 억제하고 동시에 수정율을 향상을 돕는 효과가 있다.

LiverEX 또한 한우에서 비육 말기 간 기능과 반추위의 정상화를 돕는 제품으로 현재 반응이 상당히 좋아 대부분의 배합사료 업체에 납품하고 있다고 한다.

“요즘 한우는 육질개선을 이유로 장기비육을

하는 추세인데 소에서는 장기비육으로 갈수록 반추위 기능은 떨어지게 되고, 위가 망가지면 간 기능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라고 말한 이명준 대표는 실험 데이터를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다.



취재 중 자리를 함께한 김미선 과장은 TM세미에서 10여년을 근무했다. 이명준 대표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 김미선 과장은 “엄청난 노력을 하시는 정말 부지런한 분”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했다. 취재를 한 날 TM세미의 직원들을 모두 만날 수는 없었지만 사무실 입구에 들어서서는 순간 가족

같은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한번 입사한 직원은 오랫동안 한술밥을 먹는다는 김미선 과장의 말에서 이명준 대표의 포용력과 따뜻한 인간성을 엿볼수 있었다.

(주)TM세미 이명준 대표는 지난 15년여간 많은 것을 이루어냈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하고 후회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항상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고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죠. 오늘에 충실해야 내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명준 대표는 현재 축산분야에서 식물추출제의 효과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된 데이터가 없지만 앞으로 명확하게 물질규명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첨가제 회사들이 제품의 질을 월등히 업그레이드 시켜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축산이 하나의 Science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

모든 사물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는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TM세미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목적의식은 TM세미를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앞으로 축산업계에서 TM세미의 활약을 기대해 보며 취재를 마쳤다. ㉟

